더위 피하면서 공연 보고…건강 챙기고

지하철역·보건소 '실버 피서' 인기

노인들의 무전(無錢) 피서에도 웰빙 바람이 거세다.

돈 들이지 않고 더위를 피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공연을 보고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나 보건소를 찾는 노인이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것.

광주 지하철역의 경우 대합실 온도가 28도 이하로 시원한데다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까지 마련돼 있어 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재미가 있다. 대합실이 조금 덥다 싶으면 광주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승차권인 노인 우대권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면 된다. 지하철의 실내 온도는 26도로 대합실보다 더 시원하다.

13개 역사(驛舍) 중 노인들에게 인기 있는 역사는 금남로4가역 등 4곳. 금남로4가역은 근처에 노인들의 단골 휴식처인 광주공원이 있어 다른 곳에 비해 노인들이 많이 찾는다. 지하 1층에 756평의 '만남의 광장'이 마련돼 있는데다 지하 3층 393평의 대합실 공간까지 합치면 휴식 공간이 1천150평에 달한다. 공간이 넓은 만큼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끼리끼리'시간을 보낼 수 있다.

눈치 볼 일 없고 전시회 등 볼거리 다양

금남로4가역·광산보건소 등 노인들 몰려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인 상무역, 노인들이 산책하기에 좋은 상록회관이 있는 농성역, 재래시장이 가까운 양동시장역도 노인들의 발걸음이 잦다. 이들 3개 역 역시 ▲상무 695평 ▲농성 847평 ▲양동시장 453평 등 지하 1층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더욱이 각 구청과 단체들이 주관하는 공연과 전시회, 이벤트 등이 잇따라 열려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도시철도공사 역시 16일 오후 6시 농성역에서 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을 한 데 이어 17~18일 낮 12시30분 상무역에서 시립소녀합창단 공연을 여는 등 노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홍모(69·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는 "지하철역에 오면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 우선 마음이 편하고,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만나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보건소 역시 건강도 챙기면서 더위를 피하려는 노인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광산구 보건소의 경우 매일 60대 이상 노인 50~60여 명이 찾아와 간단한 진료를 받은 뒤 보건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1층과 2층 대기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더위를 식히고 간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16일, 더위를 피해 광주 지하철역을 찾은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모(70·광산구 송정동)씨는 "은행도 시원하지만 사람도 많고 괜히 눈치가 보여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보건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에 따르면 7~8월 '노인 우대권'을 발급받아 광주 지하철 1호선 13개 역사를 이용하는 노인은 하루 평균 1만여 명. 지난 1~6월 평균 9천500명에 비해 500명(5%)이 늘었다. 지하철을 타지 않고 역사에서 쉬었다간 사람까지 합치면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공사 측은 추정하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공채관리위원과 짜고 논문실적 조작

교수임용자 등 2명 유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육대 A교수와 B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공채관리위원이었던A교수와 교수공채 지원자였던 B교수가 사전에 서로 접촉해 공채심사기준의 최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논문 실적을 급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교원공채관리위원으로 하여금 B씨를 교수채용심사에서 합격시키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수공채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교원공채관리위원회에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교수는 2003년 9월 광주 교육대 교수공채 과정에서 현재 같은 과에 재직 중인 B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공채심사기준을 사전에 서로 논의하고 김 교수가 채용심사 과정에서 최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논문실적을 급조하는 등 교수공채심사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 법규상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되며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권 내일부터 금강산 셔틀버스 운행

광주 등 호남권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16일 광주시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관광협회와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측이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에서도 18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키로 합의했다.

광주지역 대행사인 송광여행사의 셔틀버스는 매주 두 차례 (수·금요일) 광주를 출발, 전북을 경유해 금강산 남측출입국관리소까지 운행한다.

요금은 왕복 6만원이다. 출발장소는 광주역이며, 출발시간은 여행상품에 따라 '당일 코스'의 경우 전날 오후 10시, 1박2일 코스의 경우 전날 오후 11시, 2박3일 코스는 당일 오전 5시 등으로 각각 다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수업료 미납 학생 출석정지 규정 폐지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수업료 체납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규칙은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 가운데 가계 곤란 학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학비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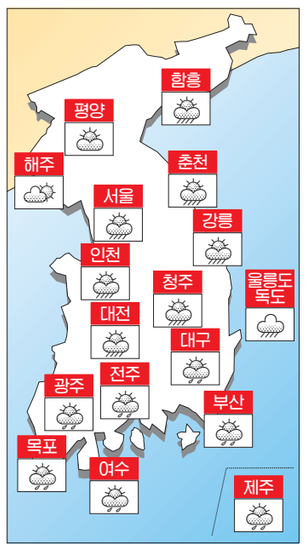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구름많고 소나기

지면과열로 대기가 불안해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8월 17일 (음 7월 24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많고 소나기	25~34℃
목포	구름많음	25~34℃
여수	구름많고 소나기	26~31℃
완도	구름많음	24~33℃
구례	구름많고 소나기	25~35℃
해남	구름많음	24~33℃
장흥	구름많음	24~33℃
고흥	구름많고 소나기	25~33℃
순천	구름많고 소나기	24~35℃
영광	구름많음	24~34℃
진도	구름많음	24~33℃
전주	구름많고 소나기	25~33℃
남원	구름많고 소나기	23~34℃
정읍	구름많고 소나기	24~33℃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3.0m

목포 밀물 07:50 21:05 썰물 01:01 13:16
여수 밀물 02:10 16:09 썰물 09:00 22:57

▲해뜸 05:53 ▲해짐 19:19 ▲달뜸 00:00 ▲달짐 14:3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날 씨						
최저/최고	24/32	23/31	24/31	24/31	23/30	2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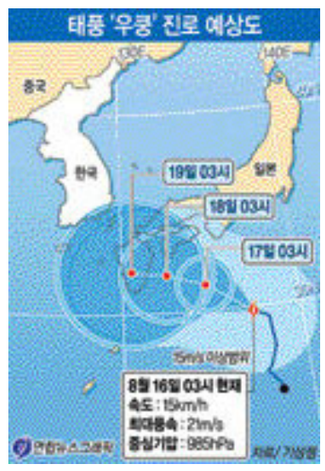
태풍, 주말 남해 접근 가능성

제10호 태풍 '우쿵'(WUKONG·중국말로 원숭이)이 오는 19일께 우리나라 남해상에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주말께 우리나라 남해상까지 진출해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강도 '약'(弱)의 중형 크기인 '우쿵'은 시속 15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해, 17일 밤과 18일 오전 사이에는 가고시마 부근을 지나면서 광주·전남과 제주, 남해상에 간접 영향을 끼쳐 비가 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우리나라 북쪽에도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어 태풍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다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5.1도를 기록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민원사무처리 신청때 제적등본 안 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34종으로 확대

내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건축허가서, 제적부등초본 등 10종을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처리감축기준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행자부), 국립묘지 이장신청(국방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건설교통부)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내달부터 행정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정보는 ▲건축허가서(건교부) ▲운전면허정보(경찰청) ▲여권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 ▲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보건복지부) ▲제적부등초본(대법원) 등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수능 응시원서접수 8월29일~9월13일

오는 11월16일로 예정된 200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된다.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고등학교에서, 졸업자 중 다른 시험지구 지원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각각 접수해야 한다.

장기 입원환자·군복무자·재소자·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출신 고교나 응시를 희망하는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하면 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17일)	
차현국	233-2930
●법무사회 법률상담(17일)	
김영주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